

장애인복지시설 비교

분 류	구미시	포항시
<u>발달장애인 수</u>	<u>2,357명</u>	<u>2,746명</u>
장애인거주시설	1개소(30명)	8개소(241명)
장애인단기보호시설	1개소	2개소
공동생활가정	2개소	7개소
장애인주간보호센터	8개소	11개소
장애인복지관	1개소	4개소(시각, 여성, 남구, 북구)

구미시 발달장애인 학부모 간담회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습니다….

울산저널 

[기획] 발달장애인 부모의 꿈,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기획/특집 / 이승진 로컬 기자 ✉ / 2023-10-23 10:44:14



내 아이가 죽는 순간까지,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 밖에 없으니까

출처 : 울산저널(<https://m.usjournal.kr/news/newsview.php?ncode=106557747>)

[기획]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현실을 묻는다

1.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탈시설 주거지원이 해법?
2. 발달장애인 1인 가구 환경개선, 사회적경제조직·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한다
3. 발달장애인 부모의 꿈, “내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어요...”
4.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동반자,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어디에 있나요?
5. 발달장애인 일자리요? 함께 노동하는 근로지원인



울산지법 2019고합365 판결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4-29)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65 살인
피 고 인 A
검 사 김준업(기소), 김미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선호
판 결 선 고 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세)의 어머니이다.

피해자 B는 자폐성 발달장애 2급으로 사회적 연령이 약 2세 5개월에 불과하여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양육 부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2017. 11.경부터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울산지법 2019고합365 판결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제시일자 : 2021-04-29)

중범죄임을 선언하고 단죄함과 동시에, 당신이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면 우리가 맡아 키우겠다고, 최소한 당신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자신 있게 공표하고 팔을 걸어붙어야 한다.

살해 후 자살 범행에 대한 온정주의의 기저에는, 부모 없는 아이들, 극도로 궁핍한 아이들,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앓는 아이들을 굳건하게 지지해 줄 사회적 안전망이 없다는 불신과 자각이 깔려 있다. 과연 그러한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2019년 대한민국은 이들에게 최소한의 삶의 버팀목 역할도 하지 못할 만큼 형편없는 나라였는가. 우리 사회도 그러했는가. 지금도 그러한가. 많은 노력에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막지 못했고 계속 재발된다는 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피해 아동과 피고인 가족을 장시간 치료하고 지켜본 담당의사의 탄원서 내용(… B 양의 죽음은 어쩌면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낸 비극일지 모릅니다. 한 부모에게, 한 가족에게만 자책과 같은 발달장애 자녀를 책임지우는 것은 똑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지 못 합니다 …)을 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이 한 개인과 그 가족에게 얼마나 힘들고 가혹한 환경인지 절감하게 된다.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그만큼이 우리 잘못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이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가정에 죽음의 그림자를 드리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비극은 언제든 재발될 우려가 있다. 아이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저, 피눈물 흘리고 울음 삼키며 슬퍼하는 일(하난설현 '국자(哭子)' 중)만은 아니라고 믿는다. 아동보호를 위한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안전망

피고인 개인을 비난하면서도 중벌에 처할 수 없는 이유는, 결과에 상응한 적정한 형벌과 실제 선고되는 형벌 사이의 차이만큼이 바로 국가와 사회의 잘못임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 그 만큼 우리 잘못이다.

선고되지 않은 나머지 형은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의 몫이다.

올산지법 2019고합365 판결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판상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정리하여 제공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게시일자 : 2021-04-29

다하고 있는가.

5) 우리가 안전망이다

재판은 사회의 문제점을 미리 막아 내지 못 한다. 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 형사재판은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형사법정은 오직 한 사건, 한 개인만을 단죄할 뿐 국가와 사회를 단죄할 순 없다. 이 지점이 당원을 무력하게 만든다. B의 입에 물린 거품을 보며, 분홍색 잠옷을 보며 비통해 하고 또 비통해

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B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참혹한 기록을 상세하게 부기하는 이유는, 우물가에 서 있는 또 다른 B 때문이다. 가난하고 마음이 불안한 부모를 둔 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기는커녕 두려워해야만 하는 이 끔찍한 현실을 통렬하게 비난하는 것 말고, 이제 와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IMF와 금융위기를 겪으며 보았듯,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런 범행은 급격히 증가한다. 최근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의 급속한 붕괴는 우리에게서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앗아갈까 두렵기 그지없다.

반복되는 이런 범행을 볼 때마다 당원은, '청테이프가, 번개탄이, 혼퍼텐이, 수면유도제가, 감기약이, 찢어진 악봉지가, 뽕뽕줄이, 동글게 말아 권 손아귀가, 열려진 옥상 문이, 갑작스런 고급 뽕 뽕 만찬이, 분에 넘친 장난감이, 예상치 못한 선물이, 계획에 없던 가족여행이, 혼자 남겨진 인형이, 밤에 묻은 그을음이, 부러진 손톱이' 두렵다. 우리의 망각과 무덤덤함이 무섭고 또 무섭다. 어떤 이의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이, 누군가에게는 가 닿을 수 없는 이상이 되는 현실은 얼마나 서글픈가.

아이를 키우는 세상 모든 어머니가 아이에게 할 말은 응당 이러해야 한다. (...) 눈

형사재판은 우물가에 서성이는 아이를 안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절차가 아니다.

아이는 이미 우물에 빠졌다.

형사재판은 우물에 빠져 죽은 아이를 놓고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절차이다.

이 지점이 당원(사법부)을 무력하게 만든다.

우리도 필요하다면 복지재단을 세워야...

사업소개	복지모아	수탁시설	열린경영	커뮤니티	후원안내	재단소개	
사업목적&기본사업	복지모아	수탁시설 운영 및 관리	윤리경영	공지사항	후원안내	제천복지재단	
S 희망이음 행복채움	모임모아	제천시장애인단기보호센터	경영계획	수감신청	후원신청	연혁·조직도	
T 복지상상플러스	기부모아	제천시실버복지관	경영공시	자료실	복지후원품증복관리	CI소개	
Y 제천시민중심	봉사모아	산책다함께돌봄센터		영상갤러리		오시는길	
L 복지길라잡이	나눔모아			보도자료			
E 함께해 온 제천	인재모아			공모정보			
	동행모아			채용공고			

